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⑳ 서울 강북구 화계사 구절초

이름 몰라도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른다

화계사 이름을 처음 들은 건 1998년 TV 다큐멘터리 '만행'을 보았을 때였다. 관심을 두었던 건 벽안(碧眼)의 스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는 직업의식의 발동이었는데, 실제로 섭외에 성공한 출판사는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제목으로 대박을 쳤다.

현각 스님은 숭산 스님과의 인연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처음 만났을 때 스님은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 이름은 폴' 이라고 대답하자 스님은 '그건 당신 몸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싶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죠. 스님이 주셨던 '오직 모를 뿐(Only Don' t Know)' 이라는 가르침은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선문답이 식물 세계에서는 통용되기 어렵다. 식물학자들은 같은 종(種)이라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 다른 이름을 붙여서 구별을 해나간다. 그 가운데 가을만 되면 들국화 때문에 놀림을 당할 수 있다. 안도현 시인이 '무식한 놈' 이라는 시에서 "쑥부쟁이와 구절초를/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이들길 여태 걸어왔다니/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라고 읊은 내용 때문이다.

토종 들국화 종류인 구절초와 쑥부쟁이는 꽃 말고 그 아래 잎을 보면 구분이 쉽다. 구절초는 잎이 쑥과 비슷하고, 쑥부쟁이는 잎이 작고 톱니가 있다. 물론 꽃의 색으로도 분간할 수 있다. 희거나 연분홍을 띠면 구절초이고, 연보라면 쑥부쟁이이다. 이를 구별 못 하면 졸지에 무식한 놈이 되니 신경 써서 살펴야 하는데, 쪼그리고 앉아 꽃 아래를 살피는 노력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 그냥 예쁜 꽃이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오직 모를 뿐, 마음만 참구하면 좋을 텐데, '삼각산화계사' 일주문 현판을 마주하니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삼각산은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 세 봉우리가 뿔 모양을 하고 있어 부르는 것인데, 지금은 북한산으로 공식 표기하고 있다. 이를 모르면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구절초가 가득한 화계사 경내.

삼각산의 이름은 〈고려사〉 등의 기록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고려시대에 '삼각산' 이란 이름이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고려 광종(949~975) 때 보덕암으로 시작했다는 기록이 친근감 있게 다가오고, 조선 중종 17년(1522)에 신월 선사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 짓고 화계사(華溪寺)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꽃도 계곡도 절도 아름답다는 이름을 가진 화계사는 이후 광해군 10년(1618)에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흥선대원군의 시주를 받아 대방과 요사채를 중수하였다는 기록에서, 그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수령 4백년 넘은 느티나무에 눈길이 가는 것도 물 흐르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1917년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 고양군 북한산 유적조사 보고서' 에 삼각산 대신 북한산 명칭을 쓴 이후부터 북한산이 등장했고, 그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숭산 스님이 겹쳐졌다. 하지만 1983년 도봉산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으로 지정되면서 북한산이 공식화되었다는 자료에 다다르자 다시 뒤를 돌아보게 된다. '삼각산화계사' , '북한산화계사' , 그 호명의 간극에서 파생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본래 형상이 아닌 것을 알려 곧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된다)."

[광우스님의 화계사 특별 법문2] '화계사 조실 숭산 스님의 생애 전법포교에 혼신을 다하다' 를 보니, 숭산 스님은 공주 마곡사에서 위의 〈금강경〉 구절을 접하고는 구도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형상에 우리가 붙인 이름에 대한 궁금증은 범종각을 지나 대웅전과 명부전으로 향하는 계단에서도 죽지 않는다. 흰 화분에 수북하게 담겨 있는 서양국화가 포트멈인지 가든멈인지, 헤아리기 어려운 눈길을 주는데, 경내를 도는 동안 계곡 쪽 은행나무 아래에 빛나게 피어 있는 구절초를 보며 이곳이 한국 선원임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구절초인지 쑥부쟁인지 두 이름의 혼돈 속에 꽃을 보는 마음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는 2018년에 형상을 갖춘 미륵석불전 앞에 서서 굽어보는데, 발밑 구절초가 태양 아래 눈부시게 웃고 있는 것 같다.

구절초(九節草)는 초롱꽃목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채취한 꽃잎으로 국화주를 담가 먹으면 몸에 좋고, 같은 날 자른 꽃과 줄기를 약재로 이용하면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한다. 국가표준식물목록을 보면, 바위구절초, 포천구절초, 한라구절초 등 11개의 구절초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자생지, 발생지에 따라 앞 이름이 정해진다고 하니 발길 닿는 데마다 다른 호명이 튀어나와야 한다. 살짝 성가신 것 같다.

"걱정 말아라. 광명은 영원하고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를 뿐이다."

숭산 스님이 마지막 남긴 말이란다. 산과 물이 만드는 식물들의 이름, 꼭 몰라도 되는 것 같아 감사를 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⑳ 나희덕의 '어떤 출토'

내 삶의 사리를 찾아

〈舍利〉

어떤 출토(出土)/ 나희덕

고추밭을 걸어내다가
그늘에서 늙은 호박 하나를 발견했다
뜻밖의 수확을 들어올리는데
흙 속에 처박힌 달디단 그녀의 젖을
온갖 벌레들이 오글오글 빨고 있는 게 아닌가
소신공양을 위해
타닥타닥 타고 있는 불꽃 같기도 했다
그 은밀한 의식을 훔쳐보다가
나는 말라가는 고춧대를 덮어주고 돌아왔다

가을갈이를 하려고 밭에 다시 가보니
호박은 온데간데 없다
불꽃도 흙 속에 잦아든 지 오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녀는 젖을 다 비우고
잘 마른 종잇장처럼 땅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의 죽음을 덮고 있는
관뚜껑을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한 웅큼 남아 있는 둥근 사리들!

–나희덕 시집, 〈사라진 손바닥〉, 문학과지성사, 2004–

아~, 그것도 사리(舍利)구나. 그렇게도 사리가 나오는구나. 출토되는구나. 아~, 그런 사리를 그렇게 발견하고, 찾아내고, 출토해낼 줄 아는 나희덕 시안(詩眼)이 눈부시구나. 혜안이 빛나구나. 이미 법안(法眼)이구나.

이 시를 처음 만난 순간 필자는 숨어 턱 막혔다. 늙은 호박이 쭈글쭈글 말라가는 것을 "소신공양"이라고 하고, 온갖 벌레들에게 다디단 속살을 다 빨리고, "젖을 다 비우고" "잘 마른 종잇장처럼 땅에 엎드려 있는" 늙은 호박 밑에 남아 있는 호박씨들을 보며 "한 웅큼 남아 있는 둥근 사리"로 치환해서 환유(換喩)하는 시인의 모습에서 필자는 불멸의 화엄(華嚴)과 함께 '충만한 모성애' (불교적 자비와 자애)를 느꼈던 것이다.

필자의 가슴을 더 서늘하게 한 대목은 2연 마지막 두 행 "스스로의 죽음을 덮고 있는/ 관뚜껑을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였다. 그건 풍장(風葬)이었다. 진정한 풍장이라면 과연, 이런 풍장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 세상 온갖 중생(벌레)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은 "둥근 사리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化身)이었다. "늙은 호박"(부처님의 육신)에 의지하며 살았을 수많은 생명("온갖 벌레들")과 그 생명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고("흙 속에 처박힌 달디단 그녀의 젖을/ 온갖 벌레들이 오글오글 빨고 있는 게 아닌가") 살다, "종잇장처럼 땅에 엎드려" "관뚜껑"이 되어버린 늙은 호박의 최후의 모습은 부처님의 자비와 자애와 화엄의 모성애로 충만하다.

나희덕 시인의 이 같은 불교적(혹은 화엄적) 사유(모성애)는 다양한 변주로 중생(독자)들을 따스하게 품어준다.

"먼 길 가는 모양이다/ 동네 어귀 느티나무 그늘 아래/ 어떤 부부가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다/ 조금은 엉거주춤하게 떨어져 선 두 사람은/ 목도리가 같아서인지 한눈에 부부 같다/ 지아비가 한 손을 올린 채 앞으로 나와 있고/ 지어미는 조금 뒤에서 웃고 있다/ 시골버스의 유일한 승객인 나는/ 그 부부를 발견하고 내심 반다웠지만/ 운전기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나치는 게 아닌가/ 두 사람은 늘 거기 서 있으면서도/ 한 번도 탄 적이 없었다는 듯이/ 아아, 버스로는 이를 수 없는 먼 길을 가는 모양이다/ 그 부부는 이미 오랜 길을 걸어 거기 당도했을 것이고/ 잠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갈하게 풀을 먹인 광목 목도리는/ 누가 둘러주고 간 것일까/ 목도리에 땀을 닦고 있을 그들을 뒤돌아보니/ 미륵 한 쌍이 석양 속으로 사라진다/ 두 개의 점, 흰 광목빛" -나희덕 시집 〈어두워진다는 것〉(창작과비평사, 2001) 중 '흰 광목빛' 전문

어느 날 나희덕 시인은 혼자 시내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갔던 모양이다. 그런데 도로 가에 돌장승(혹은 나무 장승)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외롭게 버스를 타고 가던 나 시인은 그들이 버스를 탈 손님인 줄 알고 반가웠다. 그런데 버스기사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본체만체 지나쳐 버린다. 그때 깨달았다, 나 시인은. 그들이 이미 오랜 길을 걸어 거기 당도한 사람(장승)들이었음을. 아니 "버스로는 (감히) 이를 수 없는 먼 길을 가는" 사람(장승)들임을. 그리고 그들이 "미륵" "한 쌍"(부부)이었음을. 이 땅의 수많은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였음을. 그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누군가가 "정갈하게 풀을 먹인 광목 목도리"를 둘러주고 간 것은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자식들이었음을. 아니 어쩜 그 광목 목도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직접 정갈하게 풀을 먹였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이었으므로. 비단과 모피 대신 정갈하게 풀 먹인 목도리를 두르던 것이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의 방식이자 정신이자 태도였던 것이다.

'사라진 손바닥' (시집 제목이기도 함)은 나희덕 시인의 그런 불교적 사유와 서정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처음엔 흰 연꽃 열어 보이더니/ 다음엔 빈 손바닥만 푸르게 흔들더니/ 그 다음엔 더운 연밥 한 그릇 들고 서 있더니/ 이제는 마른 손목마저 꺾인 채/ 거꾸로 처박히고 말았네/ 수많은 창(槍)을 가슴에 꽂고 연못은/ 거대한 폐선처럼 가라앉고 있네// 바닥에 처박혀 그는 무엇을 하나/ 말 건네려 해도/ 〈중략〉 백 년쯤 지나 다시 오면/ 그가 지은 연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으려나/ 그보다 일찍 오면 빈 손이라도 잡으려나/ 그보다 일찍 오면 흰 꽃도 볼 수 있으려나// 회산에 회산에 다시 온다면"

나 시인의 '사라진 손바닥' 부분이다. 마지막 연 "회산"은 전남 무안의 '회산 백련지' 이다. 회산 백련지는 동양 최대의 백련 자생지로 알려져 있다. 백련이 만개할 때쯤이면 전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관광객이 몰려든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 중에 나희덕 시인처럼 그 백련 속에서 '불교' 를 보고 '부처님의 손바닥' 을 보고, '빈 삶' 을 보고, 무유정법((無有定法)의 가르침을 사유하고 발견해내는 이가 얼마나 될까. 정말, 나 시인의 시안과 혜안과 법안을 제대로 증명해주는 시다. 특히 1연 마지막 두 행 "수많은 창(槍)을 가슴에 꽂고 연못은/ 거대한 폐선처럼 가라앉고 있네"는 이 시의 압권 중 압권이다. 이 시 속에는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와 과거 · 현재 · 미래 삼세가 다 들어 있다. 옛사랑의 모습도 들어 있다. 그래서 더 찬란하고 슬프고 아름다운 시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심장·간질환 발병 한달…
생사기로에 선 미얀마 청년

미얀마에서 온 묘민우씨 올해 8월부터 프레스공장에서 근무
심장 수술에 신장기능 50%남아 약물 치료…병원비만 15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